

“과학자는 남세자인 국민에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눈나라’ 월동대장

옆에서 본 저자 장순근



송기섭 | 한국해양연구원 문헌정보팀 책임기술원

나는 남극과 우리나라가 남극 킹조지 섬에 지은 세종기지에 관한 책 《남극탐험의 꿈》을 쓴 장순근 박사를 잘 안다. 장 박사가 프랑스에서 생물층서학(生物層序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1981년 초부터 그를 만나왔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도록 그를 옆에서 지켜본 결과 두 가지 그의 특징들이 눈에 띈다. 그는 무척 부지런하고 촌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먼저 부지런함은 도서실 출입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찾는지 나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도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도서실을 찾는다. 아마 신간도서를 훑어보리라 믿는다. 부지런한 점을 또 꼽으면 그가 점심시간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산을 오르겠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 둘레로는 등산로가 있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 많은 직원들이 그 산을 오르내린다. 장 박사는 그 산을 가장 열심히 오르내리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내가 알기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는 산을 오르내린다.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 일이 적다.

촌스러운 점을 들면, 그는 거의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자신은 스스로 “인생을 단순하게 살고 있어서”라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 그는, 국내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해외출장을 가면 꼬박꼬박 일지를 쓴다. 그

의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므로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생각하건대, 그의 이번 책도 그의 그런 좋은 습관에 큰 도움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는 그 기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장 박사의 말로는 “읽으려면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니 그의 글씨가 악필이라는 말일 게다.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글씨를 쓰는 게 주업이 아니니 글씨 못 쓰는 것은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이번 책에서 그는 우리나라 남극활동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서도 남극 세종기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언젠가 그와 함께 목동에 있는 횃집에서 술을 마실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그는 술을 자주 마시지도 않고, 많이 마시지도 못한다. 기분이 아주 좋으면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다). 남극 세종기지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 거의 15년이 되어 가는데도, 세종기지를 제대로 소개한 책이 없다고 불만 비슷하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꼭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때의 그 기분이 이번 책을 쓰게 된 큰 동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는 남극에서 네 번을 월동했다. 연구활동은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는데 월동대는 겨울에 할 수 있는 일부 연구활동 외에 기지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 장 박사는 월동을 다녀올 때마다 배워왔다고 말하곤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7~8년 전에 배웠다는 컴퓨터이다. 컴퓨터 자체보다는 컴퓨터로 글

을 쓰고 편집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자칭 악필을 감추려고?). 그 덕분에 요즘은 악필로 원고를 쓰는 수고로움을 덜었다. 대신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싱 기술로 모든 글을 쓰고 편집한다. 당시 기지에 컴퓨터가 몇 대 있었다는데, 성능이 좋은 486PC는 같이 월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주고, 자신은 성능이 떨어지는 386PC를 가지고 컴퓨터를 배웠다고 한다. 컴퓨터도 모르면서 대장이라고 좋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최근 두 번 세종기지에서 겨울을 나면서 <눈나라 이야기>라는 문집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내용은 기지에서 월동대원들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글로 정리한 것이다. 컴퓨터가 생활화되고 무료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의 하나로 글을 써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기고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서 온 편지나 이메일을 신기도 하고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를 그려서 신기도 했다. 연구원으로 돌아와서 쓰는 월동대 보고서가 월동생활의 정사正史라면 <눈나라 이야기>는 일종의 월동대 야사野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 박사가 월동하면서 그런 것을 만든 것을 보면, 그 전에 월동한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언젠가 “과학자는 연구를 하게 한 사람들, 곧 납세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는 연구와 일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보통 연구원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에 나온 책도 역시 국민들에게 쓰는 보고서인 셈이다. 반면 내가 알기로 그가 배를 타고 남극 세종기지를 오가면서 듣고 경험한 일들은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네 번의 월동생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어딘가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책으로 낼 것으로 믿는다.

장 박사는 <비글호 항해기>라는 번역서에서부터 <망치를 든 지질학자>라는 저서까지 20여 권의 책을 냈다. 2002년에는 과학문화재단과 동아사이언스가 선정한 ‘읽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 기술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글을 재미있게 쓰는 재주가 없어,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책이 많이 팔려야 하는 출판사측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는 원고를 쓰는 저자는 1차 생산자, 곧 가장 약자弱者라며 글을 쓰는 자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말을 했다. 출판사는 2차 생산자이고 서점은 3차 생산자로 가장 강자强者라는 뜻일 게다. 자본주의에서는 옳은 말이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라고 꾸짖 같은 말을 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글을 쓴다. 역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이 쓴 원고가 책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다. **한**

이 글을 쓴 송기섭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정보실장, 해양자료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문헌정보팀장을 맡고 있다.

